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reschoolers' Difficult Temperament and Problematic Behaviors

한수정¹ 신유림²

Sujeong Han¹ Yoolim Shin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schoolers' difficult temperament, resilience, problematic behavior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In addition, the research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preschoolers' difficult temperament and problematic behavio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00 four to six year olds attending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Seoul, Gyeonggi-do, or Gangwon-do. Moth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to measure children's temperament, parenting stress, and problem behaviors. Children's resilience was assessed by teacher ratings.

Result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maternal parenting stress, preschoolers' difficult temperament and problematic behaviors. Moreover, resilience moder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difficult temperament and problematic behaviors but it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oblematic behaviors.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mprehensive intervention to reduc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improve preschoolers' resilience in order to prevent their problematic behaviors.

key words difficult temperament, parenting stress, problematic behaviors, resilience

¹ 제1저자

국제아동발달클리닉 언어치료사

²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Yoolim@catholic.ac.kr)

I. 서론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른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유아들은 어린 시기부터 유아교육기관이라는 환경 속에 적응해야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일부 유아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이러한 어려움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정림, 이은정, 2014).

문제행동이란 주어진 환경적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나 연령에 적절하지 않은 또는 유

아가 속하는 사회의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지칭한다(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모,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김이영, 2014),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빈도나 정도가 점점 높아지며 학령기로 지속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남소현, 김영희, 2000). 그러므로 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 또는 예방하여 긍정적인 발달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개인 요인으로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 사회적 기술이나 사회적 능력 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며, 환경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성, 언어통제유형,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가정배경, 교사-유아 관계 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김정림, 이은정, 2014).

기질은 유아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인 변인이다. 기질이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정서의 반응성과 자기조절의 개인차를 의미하며, 유전의 영향을 받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개인의 특성이다(정옥분, 2006). 똑같은 경험이나 자극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로 반응하며 행동하는 유아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정서로 반응하며 행동하는 유아도 있다. 예컨대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했을 때 별 소란 없이 상황에 순응하는 유아가 있는 반면 심하게 울고 때 부리는 유아도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기질로 설명되는데, 특히 기질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기질의 하위 범주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Thomas와 Chess(1977)는 적응성, 규칙성, 활동 수준, 접근-회피성, 기분상태, 반응성, 반응강도, 집중력과 지속성, 주의 전환성 등의 9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하여, 이를 기초로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의 3가지 기질 유형으로 구분한다(정옥분, 2006).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불안, 공격성과 같은 내면화 혹은 외현화 문제를 보일 수 있다(Bates & Baylis, 1988).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하고 다루기 힘든 기질을 지닌 유아에게 어머니는 부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고 통제적이거나 비일관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데(김나희, 박보경, 도현심, 2012), 유아 특성이 어머니한테 일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 또한 유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양육자와 유아는 상호적인 관계이다(허미혜, 이정자, 2010).

유아의 기질과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환경 변인이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자아개념이 생겨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박진아, 2011).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온유하거나 포용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이 적고 처벌적이거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Ponnet et al., 2013).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짜증을 내게 되고, 이는 다시 유아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Patterson, 1983). 특히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이고, 육구가 좌절되었을 시 반응강도가 강하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우며 활동성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양육자를 지치게 하므로 부모에게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이정숙, 문보경, 2011; 허순금, 2006; Abidin, 1995).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유아는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Abidin(1992)은 ‘스트레스 모

델'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민감한 지각이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저해하게 되고 또한 유아의 행동과 부적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환경 변화나 부정적 자극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나 대처하는 방식은 유아마다 다르다. 어떤 유아는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달 과업을 잘 이루어내지만, 또 어떤 유아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해 부적응적인 행동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응하려는 능력인 탄력성(resilience)의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이수기, 문병환, 2011). Masten, Burt 그리고 Coatsworth (2006)는 탄력성을 이해하고 촉진시키기에 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였다. 환경에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인 탄력성은 유아기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적응을 감소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신나나 등, 2013). 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변화된 환경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적응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충동통제를 잘 하는 행동특징을 보인다(허지연, 2004). 또한 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또래나 성인과 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인내심을 보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립적이며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김정림, 이은정, 2014). 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유아들은 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유아들에 비하여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고(고윤희, 2012; 김수정, 광금주, 2010; 송진영, 2011; 엄소명, 2013; 이영분, 이연실, 2012), 외현적 문제행동은 정서적 탄력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유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이연실, 2014)고 보고되었다. 탄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적응적이고 순한 기질, 높은 지적 능력, 자아존중감, 정서와 행동 조절, 문제해결 능력,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등의 개인적인 특성과 유대감 높은 가족관계, 부모의 결속력과 화합, 좋은 경제적 상황 등의 가족 및 부모 관련 특성 그리고 효과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제반시설, 안전한 사회 분위기와 지원, 오염되지 않은 생활환경 등의 지역 사회 관련 특성이 있다(이정숙, 박현숙, 2013). 이는 유아의 탄력성이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성인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고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구희정, 2010).

유아기에 발생한 문제행동이 이후 발달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고려해볼 때 개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보면 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본 연구들은 실시되었으나 이러한 영향력을 중재해주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은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안정적인 개념으로서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탄력성을 설정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적인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탄력성이란 상황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문제해결 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부정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 다시 회복하려는 능력으로, 환경 적응에 있어 꼭 필요한 강점이므로 이는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러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변인으로 유아의 탄력성을 선정하여 중재적 영향을 검증해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 하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 탄력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 탄력성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탄력성은 기질적 까다로움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연구문제 4. 유아의 탄력성은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4세에서 만 6세까지의 유아 200명이다. 유아와 어머니,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여아 104명(52.0%), 남아 96명(48.0%)이고, 연령은 만 4세가 37명(18.5%), 만 5세가 75명(37.5%), 만 6세가 88명(44.0%)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는 총 200명으로 연령은 30대가 145명(72.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이 51명(25.5%), 20대가 4명(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졸업이 97명(48.5%)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 이하가 80명(40.0%), 대학원 이상은 23명(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전일제가 105명(52.5%)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미취업 81명(40.5%), 취업-시간제 14명(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는 총 200명으로 연령은 30대가 14명(70.0%)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20대 4명(20.0%), 40대 이상 2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하 및 대학교 졸업이 각각 9명(45.0%)으로 같았고, 대학원 이상 2명(10.0%)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은 6~10년이 14명(70.0%)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5년 이하는 5명(25.0%), 11~15년이 1명(5.0%)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은 Thomas와 Chess(1977)의 뉴욕중단연구에 근거하여 개발된 기질 척도를 김용희(1991)와 김성민(2001)이 수정하고 보완한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질적 까다로움은 접근-회피성, 적응, 반응강도, 기분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기질적 까다로움은 자극에 대한 회피성(예: 엄마 없이 처음으로 혼자 새로운 상황 어린이집, 학원 등에 있게 되면 당황해 한다)이 높고, 환경 변화에 적응(예: 다른 사람의 집을 두어 번 방문하면 이내 친숙함을 느낀다)하기 어려우며, 부정적인 강렬한 반응강도(예: 자기가 싫어하는 옷을 입히려 하면 소리 지르며 울면서 심하게 반항한다)와 부정적인 기분(예: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자주 다툰다)이 높은 것을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유아($n = 200$)		
성별		
남	96	48.0
여	104	52.0
연령		
만 4세	37	18.5
만 5세	75	37.5
만 6세	88	44.0
어머니($n = 200$)		
연령		
20대	4	2.0
30대	145	72.5
40대 이상	51	25.5
학력		
전문대 졸업 이하	80	40.0
대학 졸업	97	48.5
대학원 이상	23	11.5
취업여부		
전일제	105	52.5
취업-시간제	14	7.0
미취업	81	40.5
교사($n = 20$)		
연령		
20대	4	20.0
30대	14	70.0
40대 이상	2	10.0
학력		
전문대 졸업 이하	9	45.0
대학교 졸업	9	45.0
대학원 이상	2	10.0
경력		
5년 이하	5	25.0
6~10년	14	70.0
11~15년	1	5.0

뜻한다. 이 척도는 부모 보고용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한다. 기질적 까다로움 점수는 Sherman 등(2016)과 Walters (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였다. 4개 하위차원 중 적응성 척도는 역코딩 한 후 하위요인 별 평균을 계산하고 전체 하위요인의 평균을 합산하여, 기질적 까다로움의 수준을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까다로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측정은 Cri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문항을 안지영(2001)이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한다(예: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유아 양육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머니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89이다.

3) 유아의 탄력성

유아의 탄력성 측정을 위해 김지혜, 조선미, 홍창희 그리고 황순택(2005)이 제작한 한국 아동인성 평정척도(The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의 하위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PRC의 타당도 척도인 L척도 및 F척도와 .58, -.62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척도와 -.36의 부적상관이 보고되어 타당도가 입증되었다(김지혜 등, 2005). 탄력성 척도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유아의 대처 능력 또는 적응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감과 여유, 포용력, 인내심, 집중력, 원만하고 친밀한 대인관계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최근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한 교사가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에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예: 항상 밝은 표정이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4)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영아(2008)가 표준화한 유아용 행동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1.5-5는 부모가 만 1.5세에서 만 5세 사이 유아의 심리적 적응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지이다. 위축, 우울/불안, 정서반응성, 신체적인 불편감을 측정하는 내재화 문제행동(예: 어른들에게 붙어 있으려 하거나 너무 의존적이다)과 공격행동, 주의력을 측정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예: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면문제와 기타 문제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 전체의 점수를 산출한다. 이 척도는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며 3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자료의 수집을 위해 2016년 2월 한 달 동안 6곳의 어린이집과 2곳의 유치원, 총 8곳의 유아교

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 232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에 충실하지 않은 32부를 제외하고 200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 1은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3, 4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 전체평균은 4점 척도 기준으로 2.10($SD = .30$)이고, 기질적 까다로움의 하위요인인 접근-회피성은 2.28($SD = .45$), 적응성은 1.86($SD = .33$) 반응강도는 2.18($SD = .45$), 기분은 2.11($SD = .30$)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1.77($SD = .42$)로 4점 척도 기준으로 중간수준 이하였고, 유아 탄력성은 2.93($SD = .48$)으로 4점 척도 기준으로 중간수준 이상이였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 전체평균은 3점 척도 기준(점수범위 0-2)으로 .18($SD = .15$)이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15($SD = .15$), 외현화 문제행동은 .21($SD = .21$)로 중간수준 이하로 보고되었다.

<표 2>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 (N = 200)

변인	M(SD)	범위
기질적 까다로움(4점 척도)		
접근-회피성	2.28(.45)	1.00-3.57
적응성	1.86(.33)	1.00-3.00
반응강도	2.18(.45)	1.00-3.33
기분	2.11(.30)	1.29-3.00
전체	2.10(.30)	1.10-2.87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4점 척도)	1.77(.42)	1.00-2.89
유아 탄력성 (4점 척도)	2.93(.48)	1.75-4.00
유아의 문제행동 (3점 척도)		
내재화	.15(.15)	.00-.81
외현화	.21(.21)	.00-1.09
전체	.18(.15)	.00-.81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의하면 유아

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기질적 까다로움의 하위 요인 중 접근-회피($r = .38, p < .001$), 적응($r = .40, p < .001$), 기분($r = .32, p < .001$), 반응강도($r = .28, p < .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r = .46, p < .001$)와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아 탄력성($r = -.21, p < .01$)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기질적 까다로움의 하위 요인 중 접근회피성을 제외한 적응성($r = .28, p < .001$), 기분($r = .32, p < .001$), 반응강도($r = .47, p < .0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r = .45, p < .001$)와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아 탄력성($r = -.24, p < .001$)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유아의 문제행동 전체는 기질적 까다로움의 하위 요인 중 접근회피($r = .30, p < .001$), 적응성($r = .38, p < .001$), 기분($r = .33, p < .001$), 반응강도($r = .38, p < .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r = .52, p < .001$)와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아 탄력성($r = -.23, p < .001$)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기질적 까다로움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면, 접근회피($r = .33, p < .001$), 적응성($r = .50, p < .001$), 기분($r = .42, p < .001$), 반응강도($r = .50, p < .001$) 하위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3>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20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탄력성	1.00									
2. 접근회피	-.11	1.00								
3. 적응성	-.36***	.60***	1.00							
4. 기분	-.33***	.24**	.48***	1.00						
5. 반응강도	-.30***	.29***	.52***	.55***	1.00					
6. 기질적 까다로움(전체)	-.34***	.71***	.84***	.69***	.80***	1.00				
7. 양육스트레스	-.23**	.33***	.50***	.42**	.50***	.57***	1.00			
8. 내재화	-.21**	.38***	.40***	.32***	.28***	.45***	.46***	1.00		
9. 외현화	-.24***	.13	.28***	.32***	.47***	.39***	.45***	.73***	1.00	
10. 문제행동(전체)	-.23***	.30***	.38***	.33***	.38***	.45***	.52***	.93***	.88***	1.00

** $p < .01$, *** $p < .001$.

3.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 탄력성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 탄력성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이고 그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 순이었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beta = .38, p < .001$)와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beta = .21, p < .01$)의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30%로 나타났고, 유아 탄력성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 탄력성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N = 200$)

구분	β	t	F	R^2
양육스트레스	.38	5.23***	28.92***	.30
기질적 까다로움	.21	2.86**		
유아 탄력성	-.07	-1.10		

** $p < .01$, *** $p < .001$.

4.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1단계에 투입한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유아 문제행동의 설명력은 20%이었다($\beta = .42, p < .001$). 이는 유아의 까다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유아 탄력성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의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과 유아 탄력성의 상호작용 변인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 ($\beta = -.14, p < .05$)이 나타났으며 2%의 추가설명력으로 총 설명력은 22%이었다. 즉, 유아 탄력성만의 단독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기질적 까다로움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기질적 까다로움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N = 200$)

단계	변인	β	t	F	R^2	ΔR^2
1	기질적 까다로움	.42	6.30***	26.23***	.20	-
	유아 탄력성	-.08	-1.25			
2	기질적 까다로움	.43	6.47***	19.56***	.22	.02
	유아 탄력성	-.10	-1.44			
	기질적 까다로움×유아 탄력성	-.14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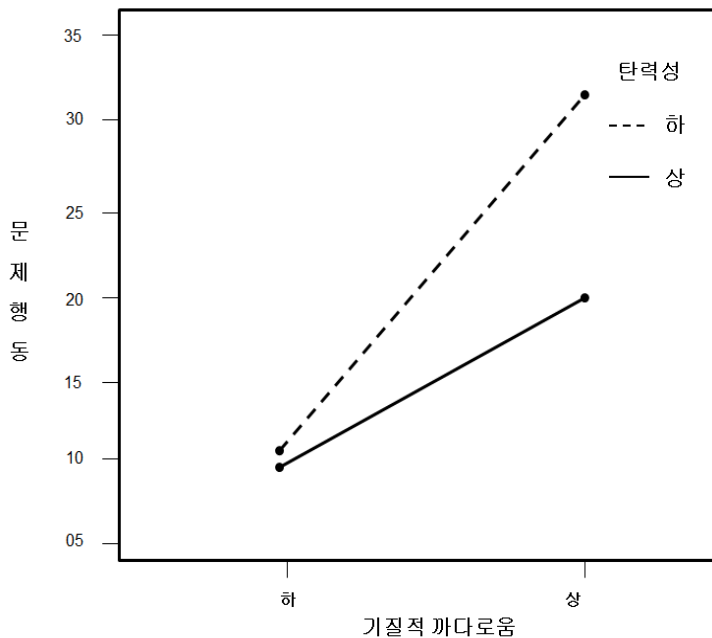
* $p < .05$, *** $p < .001$.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유아 탄력성의 점수 분포를 기초로 상위 33%의 유아는 상 집단으로 구분하고 하위 33%의 유아는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상집단의 영향력은 $\beta = .31$ ($p < .05$)이었고 하집단의 영향력은 $\beta = .57$ ($p < .001$)이었으며 이에 대한 방향성은 [그림 1]과 같다.

<표 6> 탄력성 상하 집단별 회귀분석

집단	회귀계수
상 집단 ($n = 74$)	$\beta = .31^*$
하 집단 ($n = 64$)	$\beta = .57^{***}$

* $p < .05$, *** $p < .001$.



(그림 1) 기질적 까다로움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그림 1]에 따르면, 까다로움 수준이 높고 탄력성이 낮은 유아의 경우는 문제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까다로움 수준이 높지만 탄력성도 높은 유아의 경우는 문제행동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즉 탄력성 상 집단은 탄력성 하 집단에 비해 기질적 까다로움에 따른 문제행동의 상승폭이 현저히 낮아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아 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1단계에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유아 탄력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탄력성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N = 200)

단계	변인	β	t	F	R ²	ΔR^2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49	7.86***	37.92***	.27	-
	유아 탄력성	-.12	-1.88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49	7.68***	25.16***	.27	.00
	유아 탄력성	-.12	-1.88			
	양육스트레스×유아 탄력성	-.01	-.12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4세에서 만 6세에 이르는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 유아 탄력성,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유아 탄력성의 중재효과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유아의 까다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유아의 까다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았다. 예민하고 낮은 적응성을 보이며 끊임없이 양육자를 보채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를 둔 어머니는 유아를 통제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정영민, 유연옥, 2011). 특히 활동성의 수준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에너지가 많아 어머니를 지치게 만드는데,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고 유아는 거부하는 상호작용 패턴이 자주 일어나면 어머니와 유아는 갈등관계가 되어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허미혜, 이정자, 2010). 즉 새로운 자극에 위축되고 거부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유아인 경우 어머니는 유아를 통제하거나 공감 또는 지지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으로 인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예민한 기질의 유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쉽게 진정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이 원활하지 못해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정영민,

유연옥, 2011). 즉 유아가 까다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반응성이 낮고 위축되고 불안하며 우울하고 신체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느끼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주의집중문제나 공격행동과 관련된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수면문제와 기타문제가 포함된 문제행동 전체가 더 많아짐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정도는 높고, 유아 탄력성의 정도가 낮았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유아에게 좀 더 권위적이거나 거부적이며 수동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유아와의 관계에서 무관심하거나 간섭과 통제를 지나치게 하게 되므로, 유아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지고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정영민, 유연옥,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강압적인 체벌이나 방임 같은 양육태도를 보이기 쉬우며 이러한 양육태도는 유아 탄력성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수기, 문병환, 2011). 따라서 유아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어머니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유아 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 이는 탄력성이 낮은 유아는 탄력성이 높은 유아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이나 우울, 위축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나며(김미정, 2005; 이연실, 2014), 유아의 탄력성 하위요인들 중 가족관계와 자신감 및 쾌활함이 유아의 과잉-산만행동이나 적대-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송진영, 송진숙, 2015)와 유사한 결과이다. 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므로, 자신감과 긍정성 같은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 탄력성 및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아 문제행동에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 순이었으며, 유아 탄력성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적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 가운데 양육스트레스 요인이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김현미, 도현심, 2004)와 일치한다. 양육스트레스 고위험군 어머니는 정상군 어머니와 비교할 때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훈육적이지 못하면서 양육효능감은 더 낮고 유아와의 관계에서 좌절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유아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박진아, 2011).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칭찬과 격려, 주의와 촉진, 적극적 참여와 같은 긍정적인 양육보다는 통제, 강압, 방임적 허용,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더 많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유아는 반사회적인 행동문제와 공격성이 유발될 수 있다(김대용, 정규석, 2015; 전미순, 이영애, 2009).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수용적이거나 민감한 양육방식보다는 거부적이거나 둔감한 양육방식으로 유아를 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아는 욕구 충족이 안 되어 위축된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성을 표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다음으로 기질적 까다로움이 영향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아 문제행동을 완화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유아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아가 자극에 민감하고 반응에 대한 정서상태가 부정적이

고 적응성이 낮은 까다로운 기질일 경우 정서불안이나 위축,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가 높게 나타나고(우수경, 2007; 허태희, 2008),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Lemerise & Arsenio, 2000).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 분노나 슬픔, 흥분 등을 잘 조절하지 못해 강하게 표현되는 부정적 정서성과 쉽게 포기하거나 산만하고 낮은 주의집중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발되는 직접적인 요인일 수 있다(문상희, 이경남, 2012). 즉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유아는 자기의 뜻대로 환경 통제가 안 되면, 감정과 행동이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나타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어머니는 이러한 유아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처벌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비일관적으로 양육하는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

유아 탄력성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이라 유아 탄력성은 영향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유아 탄력성, 사회성 순으로 나타난 연구(지성애, 이동엽, 2016)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유아의 기질, 유아 탄력성, 어머니의 인성특성,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교사-유아관계, 교사의 정서표현성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송진영, 송진숙, 2015)에서는 교사-유아관계가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이고, 유아 탄력성은 하위요인 별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결과와 유사하다. 즉 예언력이 높은 변인 두 개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유아 탄력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 있다.

셋째,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유아 탄력성의 중재효과가 나타났으며, 탄력성의 수준이 낮은 하집단과 비교하여 상집단의 경우에 기질적 까다로움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아 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성이 높은 유아들은 내적 통제력과 사회적 능력이 높으므로 이러한 특성들이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탄력성은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중재효과가 있었고(이신영, 정현희, 2010),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 걱정 수준이 높았지만 탄력성이 이러한 관계를 중재해주었다(박은성, 2012).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를 양육하면서 받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은 복합적인 결과일 수 있다. 권정미와 박영준(2014)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어머니의 학력,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 취업여부, 양육신념 등의 어머니의 특성과 양육참여, 부부관계 등의 아버지의 특성 그리고 기질, 문제행동, 발달저하 등의 자녀의 특성과 지역사회 양육인프라 확충 등의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인 양육스트레스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유아의 탄력성이란 부분적인 요인만으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재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다른 중재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질적 까다로움을 보이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양육 지원 서비스

의 제공과 더불어 유아의 탄력성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횡단 연구법에 근거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인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종단적 연구 설계에 의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탄력성을 하위요인들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는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여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접근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유아 탄력성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또 다른 중재변인의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가 추후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기질적 까다로움과 유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유아 탄력성의 중재효과를 밝힘으로써,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을 탐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윤희 (2012). 어머니 정서표현성 및 영유아 탄력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희정 (2010).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4(3), 271-291.
- 권정미, 박영준 (2014). 부의 양육참여와 모의 양육신념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환경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4), 115-143.
- 김나희, 박보경, 도현심 (2012).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51-163.
- 김대용, 정규석 (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4), 267-295.
- 김미정 (2005). 부모갈등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내면화와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민 (2001). 유아의 기질, 성 및 형제 유무에 따른 놀이행동 연구.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광금주 (2010).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단기·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9-37.
- 김용희 (1991).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영역 선택 및 놀이형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영 (2014).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136-153.
- 김정림, 이은정 (2014).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4), 95-113.

- 김지혜, 조선미, 홍창희, 황순택 (2005). **한국아동 인성평정척도 지침서**. 경기: 한국가이던스.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 내면적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 38(10), 199-213.
- 문상희, 이경님 (2012). 유아의 기질과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69-89.
- 박은성 (2012). 부모양육태도와 유아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2011).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자의 심리적응 및 모·자녀관계 관련 연구. **놀이치료연구**, 15(1), 43-56.
-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49-566.
- 송진영 (2011). 학령전환기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생태학적 변인 탐색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진영, 송진숙 (2015). 학령전환기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85-102.
-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과 권리**, 17(1), 109-135.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소명 (2013). 어머니와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만 5세 유아의 문제행동과 자아탄력성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김영아 (2008). **CBCL 1.5-5 유아행동 평가척도 부모용**. 서울: 휴노컨설팅.
- 우수경 (2007). 유아의 성, 기질, 사회적 능력 및 자기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27-450.
- 이수기, 문병환 (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5(6), 259-274.
- 이신영, 정현희 (2010).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행동: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6), 147-170.
- 이연실 (2014). 유아의 탄력성 군집에 따른 문제행동.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8(4), 61-91.
- 이영분, 이연실 (2012). 유아의 탄력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437-465.
- 이정숙, 문보경 (201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서조절방략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질 하위 요인들에 따른 군집을 중심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 지, 6(1), 81-97
- 이정숙, 박현숙 (2013). 국내 탄력성 연구 동향분석: 가정학 계열 학회지와 심리학회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2000~2013).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8(2), 23-41.
- 전미순, 이영애 (2009).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4), 97-116
- 정영민, 유연옥 (2011). 만 5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탄력성과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30(2), 63-83.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지성애, 이동엽 (2016).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 제반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의 사회성, 회복탄력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0(5), 485-513.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20(2), 495-517.
- 허미혜, 이정자 (2010). 부모-자녀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및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까다로운 기질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연구**, 14(2), 61-77.
- 허순금 (2006).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요인 분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지연 (200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및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태희 (2008).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4), 401-412.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ates, J. E., & Bayles, K. (1988).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In J. Belsky & T. Nezworsky (Eds.), *Clinical implication of attachment* (pp. 253-295). NY: Wiley.
- Crinic, K., & Greenberg, M.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4(2), 209-217.
-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 Masten, A. S., Burt, K. B., & Coatsworth, J. D. (2006). Competence and psychopathology in development.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nd ed.,

- Vol. 3, pp. 696-738). NY: Wiley.
- Patterson, G. R., (1983).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mezy, & M. Re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235-264). NY: McGraw-Hill.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van Leeuwen, K., Bastaits, K., & Pasteel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 Sherman, B. J., Vouspura, E., Wickramaratne, P., Warner, V., & Verdeli, H. (2016). Temperament and major depression: How does difficult temperament affect frequency, severity, and duration of major depressive episodes among offspring of parents with or without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0*, 82-88.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 Walters, G. D. (2014). Pathways to early delinquency: Exploring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contributions of difficult temperament, low maternal involvement, and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2*(4), 321-326.

논문투고 : 17.02.15
수정원고접수 : 17.05.11
최종게재결정 : 17.06.12